

영암서 기능성 항암쌀 첫 수확... “해양심층수 미네랄로 재배”

친환경 배 재배단지 30.8ha 시범 선정 19농가 참여 유도 생산량 90% 이상서 항암 기능성 성분 기준치보다 높아

영암에서 기능성 항암쌀 176t을 첫 수확해 선보였다.
기능성 항암쌀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을 활용해 유기농 탄소유농법으로 벼를 재배한다. 일반 쌀보다 항암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컬 수치가 높아 인기 속에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항암쌀 계약재배를 위해 친환경 벼 재배단지 30.8ha를 시범 선정하

고, 19농가의 참여를 유도했다.
군은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재배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8-9월 시범 재배단지에서 이온 미네랄을 살포했다.
10월 기능성 쌀 재배를 총괄한 영암농협은 재배농가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선진지견학을 실시해 재배 노하우도 공유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재배한 쌀의 성분검사는 11월 실시한 결과, 생산량의 90%가 넘는 양에

서 항암 기능성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자연드립은 이달 초 영암군의 항암쌀 전제를 시중 유기농 쌀 수매가의 110% 수준으로 매입했고, 앞으로 아이쿱생활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기능성 쌀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고, 군 내 재배면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항암쌀 등 다양한 기능성 쌀의 생산을 확대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가소득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2023년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간담회’ 가져

무안군은 12월 1일 군청 3층 상황실에서 2023년 무안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안군 인구감소 위기를 공감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무안군은 2021년 합계출산율이 0.967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또한 2022년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 오피스파트 입주율 정점으로 현재까지 인구수가 감소추세로 인구 10만 도농복합도시 목표달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간담회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성훈 부군수를 비롯하여 무안군의회 의원, 관내 대학교 교수, 사회단체 위원, 실과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무안군 인구현황과 인구감소 원인, 전망, 타 지자체 인구정책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인구교육 영상자료 시청, 안전발표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무안형 키즈카페, 24시간 아이 돌봄사업, 고품격 일자리사업, 정주여건 조성,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스포츠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김성훈 인구늘리기 추진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인구정책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오는 13일 ‘인구와 미래, 일류 함평의 방향’ 주제로 전영수 교수 초청 강연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 위한 역량강화 교육 3회차 실시

함평군이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 함평역 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글로벌 사회경제학자 전영수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강연은 ‘인구와 미래, 일류 함평의 방

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를 통계분석적으로 풀이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함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전영수 교수는 KBS ‘명견만리’ ‘아침마당’,

‘손에 잡히는 경제’, ‘세바시’ 외 여러 방송에 출연했으며 ‘대한민국 인구·소비의 미래’, ‘각자도생 사회’,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인구전문가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강연이 함평의 인구문제 극복과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됐으면 한다”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망찬 함평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도 청년 활동의 폭 넓은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사)한국 여성농업인 신안군 연합회 발대식 및 취임식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신안군은 지난 4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한국 여성농업인 신안군 연합회 발대식 및 진선미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라남도에는 전라남도연합회와 14개 시군 연합회원이 도농 교류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신안군 연합회는 진선미 초대 회장을 비롯한 박미영 수석 부회장, 남행미 대외협력 부회장, 문화순 사업부회장, 최경자·김연옥 감사가 취임했으며,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선미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변화에 도전하고 발전하는 신안군 대표 여성농업인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취임하신 진선미 회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신안군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대신지구 외곽도로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 마무리로 전면 개통

영광군은 영광읍 삼원빌라~고추시장사거리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연장 320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시계획 도로이다.

그간 삼원빌라~고추시장사거리 구간은 폭

5~6m로 협소하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었다.

이에 영광군은 도로개설로 차량 교통이 가능하도록 차도폭을 확보하고 보도설치와 가로수 식재로 주변 여건과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 안전과 운전자의 주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 안전점검

목포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목포시가 관리·운영하는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종합점검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 이행 등의 안전실태를 진단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상반기 점검 시 발견된 개선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중대재해 예방대상 관리부서 총 60개 부서이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목포시가 발주한 도급·용역사업 관리부서 31개 부서, 192개 사업 ▲시 소속 현업업무 종사자 관리 24개 부서, 531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42개부서, 65개 사업 등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